



■ 허정무호 월드컵 아시아전 요르단전 1-0 승

수비 자주 뚫리고, 골 결정력도 부족

고질적 불안 여전

'지옥의 원정 2연전'을 치르고 있는 허정무호가 고질적인 수비 불안과 결정력 부족이라는 원초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해 진전긍긍하고 있다. 허정무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은 8일 오전(이하 한국시간) 요르단 암만 '킹 압둘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아시아지역 3차 예선 3호 4차전에서 박주영(서울)의 페널티킥 결정골을 앞세워 요르단을 1-0으로 제압했다. 이로써 한국은 2승2무(승점 8)를 기록, 이날 투르크메니스탄과 홈경기에서 1-0 승리를 낚은 북한과 동행이 됐지만 골 득실(한국 +5, 북한 +2)에서 앞서 조 1위 자리를 지켰다. 한국은 투르크메니스탄 원정(14일), 북한과 홈경기(22일)를 남겨두고 있지만 거친 중동원정에서 귀중한 승점 3을 챙겨 조 2위까지 주어지는 최종예선 진출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 <답답하고 결정력 없는 공격 전술=전반 공격수로 나선 이근호(대구)-박주영(서울)-설기현(풀럼) 트리오에 전반전 동안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전반 6분 공격진에서 불을 뚫기면서 역습을 내주면서 실점 위기를 맞기도 했다. 이번 요르단전에 나선 공격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약속된 플레이'를 보기 어려웠다

는 점이다. 대표팀은 요르단과 경기를 앞두고 수비형 미드필더에서 시작해 박지성을 중심으로 좌우 날개들이 효과적으로 공간을 파고들며 골을 노리는 세트 플레이 훈련을 반복적으로 실시했지만 정작 실전에서 훈련의 성과를 찾아보기 힘들었다. <안정감 잃은 수비라인= 대표팀의 수비 전술은 출발 단계부터 빠격하는 소리를 냈다. 허정무 감독은 '불박이 왼쪽 풀백' 이영표(토트넘)의 경기감각이 살아나지 않자 김동진(제니트)을 왼쪽 풀백이나 중앙 수비수로 세우겠다는 복안을 세웠다. 하지만 중앙이 좋지 않던 김동진이 대표팀에서 '도중하차'하면서 감독의 전략은 꼬이기 시작했다. 허 감독은 김치우(전남)가 아직까지 경험이 부족하다는 판단 아래 이영표에게 왼쪽 풀백을 맡겼지만 요르단전에서 전반에만 세 차례나 거뒀던 불이 상대 공격수에 맞고 자기 진영으로 흘러 역습을 제공하는 불안한 장면을 보여줬다. 결국 이영표는 후반 22분 이정수(수원)와 임무를 교대해야만 했다. 그 뿐만 아니라 강민수(전북) 역시 경기 중반 후반에서 불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 상대 공격수에게 불을 뚫기는 위험천만한 모습을 보여줘 코칭스태프의 가슴을 쓸어내리게 했다. /연합뉴스



8일 오전(한국시간) 요르단 암만 킹 압둘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아시아지역 3차 예선 4차전 한국 대 요르단 경기에서 박주영이 페널티킥을 성공시킨 후 환호하고 있다. 한국이 1-0으로 승리했다. /연합뉴스

박주영 역시 해결사

전반 PK 가계성 성공
北 제치고 조 1위 견인

박주영(23·FC서울)이 침착하게 페널티킥을 성공시켜 축구 대표팀에서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박주영은 8일(한국시간) 요르단 암만의 킹 압둘라 스타디움에서 끝난 2010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아시아지역 3차 예선 4차전 요르단과 원정경기에서 전반 22분 페널티킥으로 선제 결정골을 터뜨려 1-0 승리를 이끌었다. 2006 독일월드컵 아시아지역 예선이 열린 2005년 6월 우즈베키스탄 전을 통해 대표팀 데뷔전에서 첫 골을 넣은 이후 자신의 8번째 A매치 골. 최전방 공격수로 그라운드에 나선 박주영

은 전반 21분 첫 골 기회를 맞았지만 어렵게 놓쳤다. 왼쪽 날개 이근호(대구)가 왼쪽 측면을 파고든 뒤 절묘하게 찰러 준 패스를 눈 슛트 오른쪽 슛트로 연결했지만 상대 골키퍼에 걸리고 말았다. 하지만 박주영은 두 번째 기회는 결코 놓치지 않았다. 전반 22분 수비수 오범석(사마라)이 상대 골키퍼의 반칙으로 얻은 페널티킥을 침착하게 차 넣어 선제결정골을 터뜨렸다. 숨을 한번 고른 뒤 앞으로 달려들며 오른 발로 강하게 왼쪽으로 찬 불에 요르단 골키퍼 로아이 엘라미아레는 방향을 잃고서도 손을 쓸 수가 없었다. 워낙 빠르게 찰린 골이 엘라미아레가 오른 손을 쭈 뻗었지만 이미 골망을 흔든 뒤였다. 박주영이 키에 대한 자신감과 침착함을 어김 없이 보여준 장면이었다. /연합뉴스

포르투갈·체코 나란히 첫승

각각 터키·스위스 제압

2008 유럽 축구선수권



포르투갈이 '미니 월드컵'인 2008 유럽 축구선수권대회(유로2008) 첫 경기에서 터키를 제압하며 기분 좋은 승리를 냈다. 체코도 공동 개최국 스위스와 개막전 승리로 8강 진출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 포르투갈은 8일(한국시간) 새벽 스위스 제네바 스타드 데 제네바에서 열린 대회 A 조 1차전에서 페페의 선제골과 라울 메이렐레스의 추가골로 터키를 2-0으로 제압했다. 이로써 포르투갈은 첫 단추를 잘 꿰고 승점 3을 챙겨 사상 첫 우승을 향해 순조롭게 출발했다. 포르투갈은 유로선수권대회에서 1996년 8강, 2000년 3위에 이어 2004년 자국 대회에서 준우승을 했지만 우승과 인연이 없었다. 올해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와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에서 소속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우승으로 이끌고 득점상을 휩쓴 포르투갈 '간판'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는 득점포를 가동하지 못했지만 현란한 드리블과 대포알 슈팅, 정교한 패스로 경기장을 가득 메운 팬들을 열광시켰다. 체코도 앞서 스위스 바젤 샹크트 야콥파크에서 펼쳐진 개막 경기에서는 바르클라프 스페르코스의 결승골에 힘입어 스위스를 1-0으로 물리치고 첫 승을 올렸다. 유로선수권 조별리그가 시작된 1984년 이탈리아 대회 이후 개최국이 패한 건 2004년 대회 때 포르투갈이 그리스에 1-2로 탈미를 잡힌 이후 두 번째다. /연합뉴스



포르투갈의 페페(왼쪽)가 8일(한국시간) '유로 2008' 터키와의 경기에서 선제골을 넣은 후 팀 동료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의 축하를 받고 있다. 포르투갈이 2-0으로 승리했다. /연합뉴스

'하이킥 달인' 크로캅 부상

15일 日격투기 출전 무산

'하이킥의 달인' 미르코 크로캅(34·크로아티아)이 팔꿈치를 다쳐 15일 격투기 대회 출전이 무산됐다. 북미 격투기 전문 매체 셔독은 8일(한국시간) 크로아티아 언론을 인용해 크로캅이 훈련 도중 팔꿈치 부상 악화로 15일 일본 요코하마아레나에서 열린 '드림 4' 대회에 출전을 취소했다고 전했다. 크로캅은 이 대회에서 특별 룰을 적용하는 미들급 그래플링 경기에서 하레크 그레이시(23·브라질)와 맞대결할 예정이었다. /연합뉴스

- 9일(월)
- 메이저리그 (시카고C: LA다저스) (09:00·Xports)
- 원주시장배 국제여자 초청 농구 <김천시청: 아산>(13:20·SBS스포츠)
- 트릴야구 (17:00·MBCSPN)
- 일본 프로야구 <요미우리: 세이부> (17:45·SBS스포츠)
10일(화)
- 유로 축구 2008 <루마니아: 프랑스> (01:00), <네덜란드: 이탈리아>(03:30·MBCSPN)

대인동상일부동산
(02)21-1140, 2011-1140-2522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빨리 팔고 싶으시거나 임대 내 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저희 부동산은 오래도록 광주시내권 및 시외순번으로 모텔·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사실본과 연인실본 손님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정남께서 소유하고 계신 건물을 팔거나 임대 내 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일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사정남께서 저희 부동산에 내놓으신 소중한 건물은 철저하게 비밀보장하여 조용히 팔아드리겠습니다.

고흥신도시공인중개사
(061)833-6689
(010)8004-6669
고흥, 녹동터미널옆 (상가부지, 300평) 평당 70만원
비전: 광주에서 고흥우주센터까지 고속도로
현재공사중 완공시 광주에서 고흥까지 30분거리, 녹동읍인 화관역 4차선도로로직접 직사각형, 정남향
녹동에노른자위, 중원조선소
동임리, 유자화정원, 약 2만명 인구증가로 호텔, 음식점, 화원 등 다용도상가건축가능지역 주변시세, 약 150만원 여수 고흥간 2리원공사 여수까지 10분거리(현재공사중) 년 말 소득노드(현재공사중) 개발 시는 관광과 수만명이 고흥지역 관광이행으로 세계적인 도시로 급부상하는 아름다운 해변도시, 중상가 땅
고흥만 유채꽃 관광지부근 인 02500평 농장 과수원부지로 최적 도로전 완전자산으로 거의평지/평당 2만5천원
고흥 대천리해수욕장부근 바닷가집한 0인간 유자밭으로 약3천평 평당 10만원, 광주-고흥간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부근평으로 모텔, 펜션, 별장지로 최적의 해변모래사장과 붙어있는 조망전망은 땅

첨단월세공인중개사
(02)972-4385
(011)804-8205
(010)226-0047~8
법원경매 전문
지지경매컨설팅(주)
(법원경매입찰장 원)
명석한 권리분석, 명쾌한 명도, 명확한 수익성 분석에 의한 재테크 전문상담
▶ 아파트/빌라
▶ 전세/상가주택/오피스텔
▶ 상가건물/모텔
▶ 주택
▶ 토지/공장

법원경매 전문
지지경매컨설팅(주)
(법원경매입찰장 원)
명석한 권리분석, 명쾌한 명도, 명확한 수익성 분석에 의한 재테크 전문상담
▶ 아파트/빌라
▶ 전세/상가주택/오피스텔
▶ 상가건물/모텔
▶ 주택
▶ 토지/공장

법원경매 전문회사
- 늘 앞서는 사람들 - (주)옥션코리아
(법원경매입찰장 원) 상담전화: (062) 222-8446
성공적 파트너 / (주)옥션코리아 무료상담
▶ 주택
▶ 아파트
▶ 근린시설/근린상가 상담
▶ 근린주택/다세대/빌라/전세 상담
▶ 토지
▶ 공장

국민공인중개사
(011)635-7939, 010-3114-6103
(주)명도 부동산(주)
▶ 6의 사할 공매
▶ 6의 사할 공매
▶ 6의 사할 공매